

Latin America's Perspective of Korea

라틴아메리카의 눈으로 본 한국

서울 도심에서의 기억을 되돌아보며¹⁾

토마스 리

최근 5년 간 한국의 수도 서울은 내 집이었다. 그리고 그간의 서울 경험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과테말라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나에게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뿌리를 찾고 내 피에 흐르는 문화를 경험하는, 일종의 변곡점을 의미했다. 서울에서 보내는 첫 2년은 밀월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환상적이었다. 여러 관광지, 훌륭한 음식,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이라는 현대적인 도시 자체의 아름다움이 내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의 혼합을 보여주는 마법적인 도시였다. 전통적 뿌리와 오랜 관습은 강력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동시에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발전과 진보를 거듭하는 메트로폴리스의 근대적 요소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올해(2016년) 6월 나는 한국에서 보내는 여섯 번째 해를 맞았다. 아마도 내년이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기에 나는 한국이 내게 선사한 경험과 가치에 대해 숙고하는 일종의 명상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기억에 남은 서울 곳곳을 다시 찾아가 예전에 느낀 감흥과 생각을 곱씹어 보는 서울 여행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여정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명동과 남산타워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관광객이나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현지인으로서 이곳을 다시 찾

1) 이 글의 원문(Reviviendo Experiencias en el Corazón de la Ciudad)은 117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편집자.



닭꼬치(좌)와 소세지(우)는 명동의 전통 길거리 음식(출처: <http://vintagetrinkets.blogspot.kr>)

고자 했다.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위치한 명동은 말 그대로 관광객을 위한 쇼핑 천국이다. 명동의 길거리는 옷, 구두, 액세서리, 화장품,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로 가득 차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구할 수 있는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 백화점도 가까이 있다. 게다가 한국, 일본, 서양 음식 등 국적을 망라하는 패스트푸드 식당과 패밀리 레스토랑도 많다. 하지만 가장 관광객의 시선을 끄는 것은 당연히 길거리 음식일 것이다. 명동의 길거리는 음식을 파는 조그마한 포장마차들로 가득하다. 개 중에는 떡볶이, 계란 빵, 닭꼬치와 같은 전통 음식도 있지만 크레페, 케밥, 해산물과 같은 외국 음식과 퓨전 요리도 있다.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이 놀랍도록 맛있고 질 좋은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한국에 온 첫해에 나는 명동을 자주 찾았다. 보통의 여행객처럼 명동의 호화로운 분위기를 즐기면서 돈을 쓰고 음식을 맛봤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으니 근심거리라곤 없었고 주머니에 돈은 많았다. 그런 내게 명동은 새로운 도시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이러한 기억을 떠



남산 타워로 향하는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밤길(출처: 필자 제공)

올리며 나는 오랜만에 명동으로 향했다. 하지만 왠지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6년간의 우여곡절로 여러 생각을 하게 된 지금의 내가 관광객의 마음가짐으로 들떴던 과거의 장소로 돌아간다는 것은 꽤나 초현실적인 일이었다. 지금은 도시의 화려함을 향한 회의감과 도시생활에 대한 환멸감이 더 커서 과거의 향수에 완전히 젖어 들기가 힘들었다. 마술이 풀리자 이 도시는 예전처럼 마법 같아 보이지 않았다.

명동의 길거리를 거닌 후, 지금은 ‘N 서울 타워’로 더 잘 알려진 남산 타워로 향했다. 남산 타워는 MBC, SBS, KBS 등 지상파 방송국의 송신 안테나를 갖춘 전파 송출 탑이다. 60년대 말에 건설된 이 탑은 80년대부터 대중에게 개방되어 서울의 가장 중요한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 탑을 찾으며, 특히 서울 전체가 불을 밝히는 밤에는 수많은 사람이 야경을 감상하러 이곳을 찾는다. 또한 타워 주변에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상징인 자물쇠를 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이 남산 타워는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서울의 상징이 되었다.

남산을 찾는 대다수 사람은 탑이 있는 남산의 정상에 오를 때 케이블카를 이용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도심의 공기 중을 날아보는 것도 관광객에게는 필수 코스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산을 방문했을 때, 나 역시 케이블카를 타며 낭만적인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남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었다. 관광객 사

남산 타워 야경(출처: <http://photo.naver.com>)

이에 끼여 긴 줄을 서고 케이블카 안에서 사람들에게 치일 기분은 아니었다. 그래서 산 정상까지 걸어 오르기로 했다. 시간을 들여 이 순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곧 나는 산을 걸어 올라가기로 한 것이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름다운 풍경 위로 불을 밝힌 길은 신비로운 분위기로 나를 맞았다. 게다가 산책로를 따라가면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내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길, 자연, 도시의 전경은 놀랍고도 평화로워 나는 그 순간에 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산꼭대기로 향하는 여정은 더 빨리 가는 것을 겨루는 시험도 아니었고, 의무도 아니었다. 나는 빛과 분위기를 즐기고, 생각에 점점 더 빠져들며 완벽한 자유를 느꼈다.

물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열정은 점차 사라져 갔다. 명동의 길거리나 남산 타워와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느꼈던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깨닫는 것들과는 매우 달랐다. 관광지로서의 화려한 도시의 다른 면에는 경쟁, 분주한 일상, 책임, 일, 공부 등으로 계속되는 시간 싸움의 중압을 견디며 살아가는 시



잠두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출처: <http://www.korea-hotels.net>)

민들이 존재한다. 그날 밤 남산 정상 가까이 있는 잠두봉 전망대 벤치에 앉아 멀리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삶의 원동력과 의미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힘을 쏟아 붓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방향성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분주한 삶의 압력을 견디면서 어떤 지점을 향해 집요하게 달려가기만 할 뿐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동의 길거리와 남산 타워에서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것은 내 주변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삶은 목표를 향한 경주가 아니라 여러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현재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Julio Iglesias)의 노래 가사처럼 말이다. “인생을 즐겨야 해. 시간은 금방 가 버리거든. 네가 지금 가진 걸 누려. 떠날 땐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²⁾

2) 가사 원문 “Caballero, hay que gozar la vida, que de pronto el tiempo se te va. Disfruta lo

명동과 남산 타워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음식과 활동, 화려한 소비생활과 호화스러움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새로운 경험과 오락거리에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나는 남산 타워가 서울의 상징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간다는 피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가장 진정하고 순수한 형태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산의 신비로운 산책로 가운데에 있는 전망대에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나는 도시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방일 수도 있고, 일을 함께 하고 있는 회사의 빛일 수도 있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없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도시의 삶은 정신없이 바쁘고 가끔은 견딜 수 없는 압력을 행사하지만, 한 번씩은 일상에서 떨어져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불빛 하나하나, 또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가치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도시 전경의 신성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민정 옮김]

토마스 리 — 파나마에서 11년을 거주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국제개발협력, 경제학과 재학

정민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

que tienes, que cuando te vayas, no te llevas nada”